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등산

그학년 1반 11번 홍유준

금요일에 약속한 등산인데 전날 밤 늦게  
천둥 번개에 비까지 내리서 산에 못가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침엔 그쳤다.  
일찍 아바따라 동생하고 소래산에 갔다.  
엄마는 아프셔서 같이 못가고 우리끼리만 왔다.  
엄마는 잠실방에 가산다고 했다.  
아바 친구분들도 다섯분이나 와주세요  
산에는 벌써 나무가 많이 피어 녹색이 되었다.  
산에 올라가는데 개미가 집을 짓고 있었다.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신기했다  
아바 친구분들은 벌써 부터 힘이 든다고 하셨다.  
산정상에 올라가서 동생과 비누방울놀이도 하였다.  
정상옆에 조그만 식당이 있었다. 산에 오르다 보니  
배가 고팠다. 그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우리는 잔치 곡수와 두부를 먹었다.  
운동하고 먹으니 더 맛있었다.  
내려갈때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엄마랑도  
같이 와야겠다.